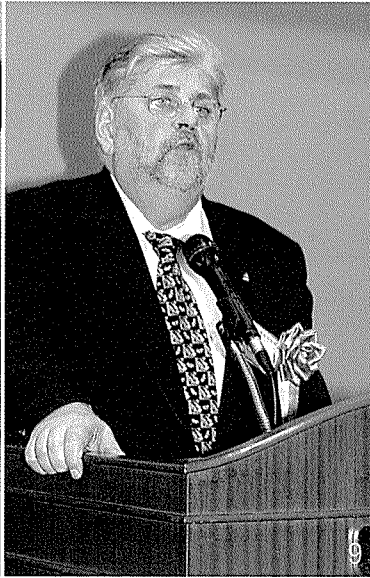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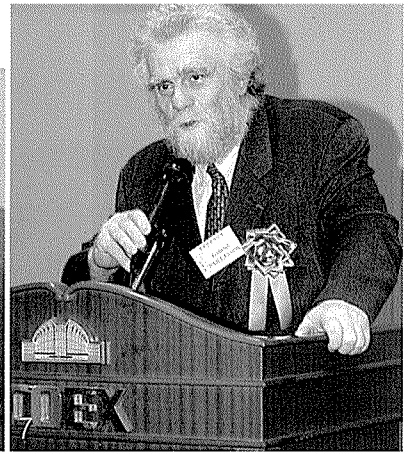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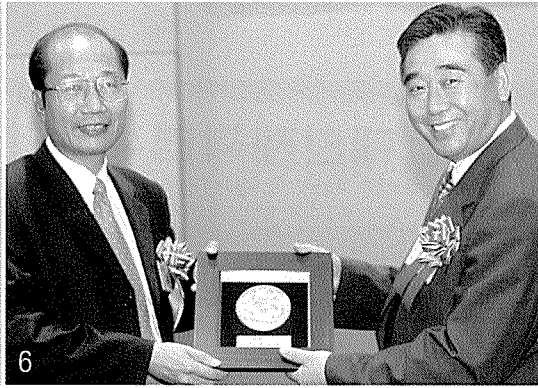


1, 2, 4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김명현 차장 등 내외빈과 함께 Siba 2005 현장을 둘러보고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케이크커팅을 했다. 3 다카하시 유스케 회장을 비롯한 일본양과자협회연합회 임원단. 5 월드페이스트리컵 창시자 가브리엘 빠야송 씨는 국제대회한국대표선발전 기간 내내 한국 제과인의 경연을 지켜봤다. 6 대만제과협회 료본창 이사장은 (사)대한제과협회에 친선 교류 기념패를 전달했다. 7, 9 축사에 나선 세계양과자연맹 가브리엘 빠야송 부회장과 프랑스제과협회 프랑소와 까르트롱 회장. 8 (사)대한제과협회는 제5대 제과명장으로 선정된 서정웅 서정웅 명장에게 기념패를 전했다. 10 갈라디너는 세계 제과인이 우정을 쌓는 뜻 깊은 자리였다.



Siba >> '제과' 라는 공통어로 하나 된 갈라디너 Siba위해 높이 든 우정의 잔

Siba 2005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국내외 관계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인 갈라디너(Gala Dinner 만찬)가 행사 첫째날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는 내외빈 소개로 문을 열었다. 가브리엘 빠야송, 프랑소와 까르트롱, 다카하시 유스케, 료본창(廖本蒼), 강일명(江一鳴) 씨 등 각국의 제과업계 대표자들과 (사)대한제과협회 임원진, 국내 제과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외빈 소개에 이어 올해 제5대 명장으로 선정된 서정웅 명장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이뤄져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고 올해 처음 교류를 맺은 대만제과협회 료본창 이사장이 김영모 회장에게 선물을 전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피어났다.

이후 김영모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국 외빈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김영모 회장은 "Siba 2005가 UFI의 공인으로 국제 전시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전세계 제과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외빈께 감사를 드린다"고 내외빈을 환영했다. 이어서 일본양

과자협회연합회 다카하시 유스케 회장도 "각국의 제과인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 만나 서로가 과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일본의 좋은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우정의 메시지를 선사했다. 이어 월드페이스트리컵 창시자 가브리엘 빠야송 씨는 "Siba에서 직접 한국 선수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니 한국팀이 국제 대회에서 당당히 1위가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참관 소감을 밝히고 프랑스 제과협회 프랑소와 까르트롱 회장은 "프랑스 제과업계의 대표로 Siba 2005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고 전 세계 모든 제과인들이 '제과인'이라는 직업에 자신감을 갖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반가움을 전했다. 대만제과협회 료본창 이사장도 "양국 교류가 잘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각국 외빈들의 인사말이 끝난 후에는 Siba 2005의 성공적인 개최를 빌며 한 마음이 되어 모두 즐거운 축배를 들었다. 다함께 높이 든 잔속에는 '제과' 라는 공통된 언어로 하나가 된 전 세계 제과인들의 깊은 우정이 담겨져 있었다.